

경주 남산  
가이드북 ㉔

# 경주남산

남산탐방길



경주 남산 연구소



CONTENTS

남산탐방길	3
쉽게 찾아가는 남산탐방길	4
①월정교	6
②인왕동사지	7
③일정교	7
④천관사지	8
⑤도당산과 화백정	9
⑥전 삼화령	10
⑦남산신성	11
⑧금오정	12
⑨상사바위	12
⑩사자봉	13
⑪남산부석	13
⑫금오봉	14
⑬지바위골 마애불	14
⑭월암종택	15
⑮남간사지 당간지주	16
□나정	17
□창림사지	18
□포석정지	19
□운을곡 마애불좌상	20
□부엉골 마애여래좌상	21
□부흥사	22
□능비봉 오층석탑	22
□상서장	23
□불곡 마애여래좌상	24
□탑곡 마애불상군	25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26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27

남산은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 분지의 남쪽에 있으며, 불교유적의 보고(寶庫)이자 신라인들의 영산(靈山)이며,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북의 금오봉(金鰲峰, 468m)과 남의 고위봉(高位峰, 494m)을 중심으로 동서 너비 4km, 남북 길이 10km의 타원형으로, 한 마리의 거북이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 엎드린 형상이다. 골은 깊고 능선은 변화무쌍하여 기암괴석이 만물상을 이루었으니 작으면서도 큰 산이다.

남산에는 온갖 전설이 남아 있고,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역사의 산이며, 선조들의 숨결이 가득한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이 산 주변에는 신석기 말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신라시조 박혁거세거서간이 탄강(誕降)하신 나정(蘿井)과 초기 왕궁, 나을신궁(奈乙神宮), 왕릉이 즐비하며, 도성(都城)을 지켜온 남산신성(南山新城)을 비롯한 4곳의 산성과, 망국의 한이 서린 포석정지(鮑石亭址)가 있고, 수많은 불상과 탑들이 남아 있어 남산은 실로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한 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서 깊은 산 기슭에 신라궁성의 다리였던 월정교가 복원되고, 도당산터널이 건설되면서 남산탐방길이 조성되어 남산의 유적을 찾기가 한결 쉬워졌다. 이에 남산탐방길을 따라가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와 신앙과 정서를 듬뿍 느껴보자.

○ 월정교 찾아가기

- 도 보 : 버스터미널, 경주역 등에서 약 15~30분 소요.
- 승 용 차 : 고속도로 나와서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오릉방향)하여 800m 정도 진행하여 다리(남천교) 직전에서 우회전 하여, 800m 지점에서 월정교가 보이며, 그 앞에 월정교 주차장이 있다. ♣경주시 천원2길 11
- 택 시 : 시내에서 월정교 주차장으로 가면 됨. 5~10분 소요. 요금 3,000~5,000원 정도.
- 시내버스 :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앞의 아님), 경주역 등에서 내남행(500, 502, 505, 506, 507, 508번) 버스를 타고 탑리마을에서 하차(약 10분 소요), 월정교 방향 도로로 약 8분 소요. 배차시간은 500번이 30분.



慶州南山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Mt. Namsan in Gyeongju, Korea(THE RING)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경주 남산의 아름다움과 곳곳에 깃들어 있는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고 유적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아울러 남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사)경주남산연구소

www.kjnamsan.org

E-mail: kjnamsan@hanmail.net

경북 경주시 태종로 711번길 15(노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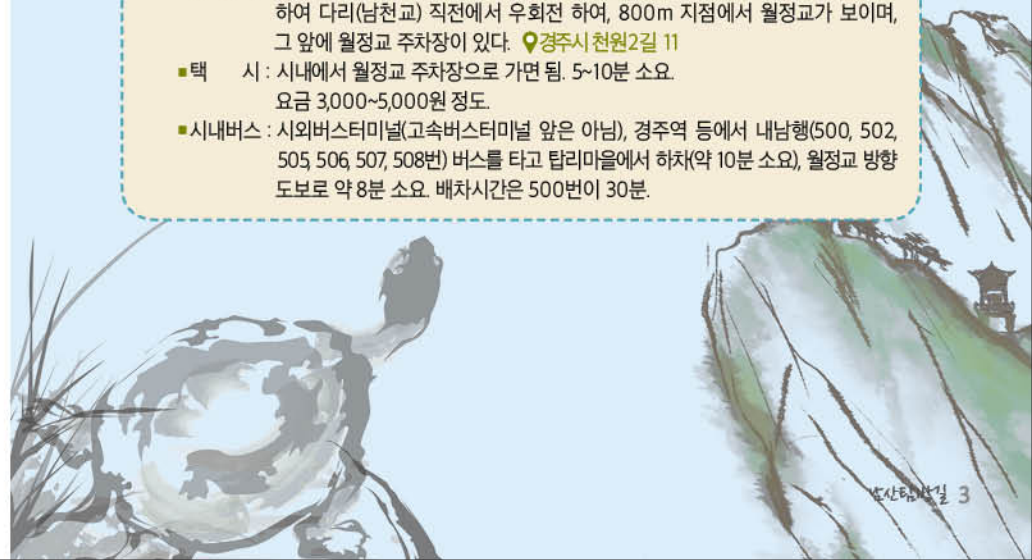
Tel. 054-777-7142

Fax. 054-776-7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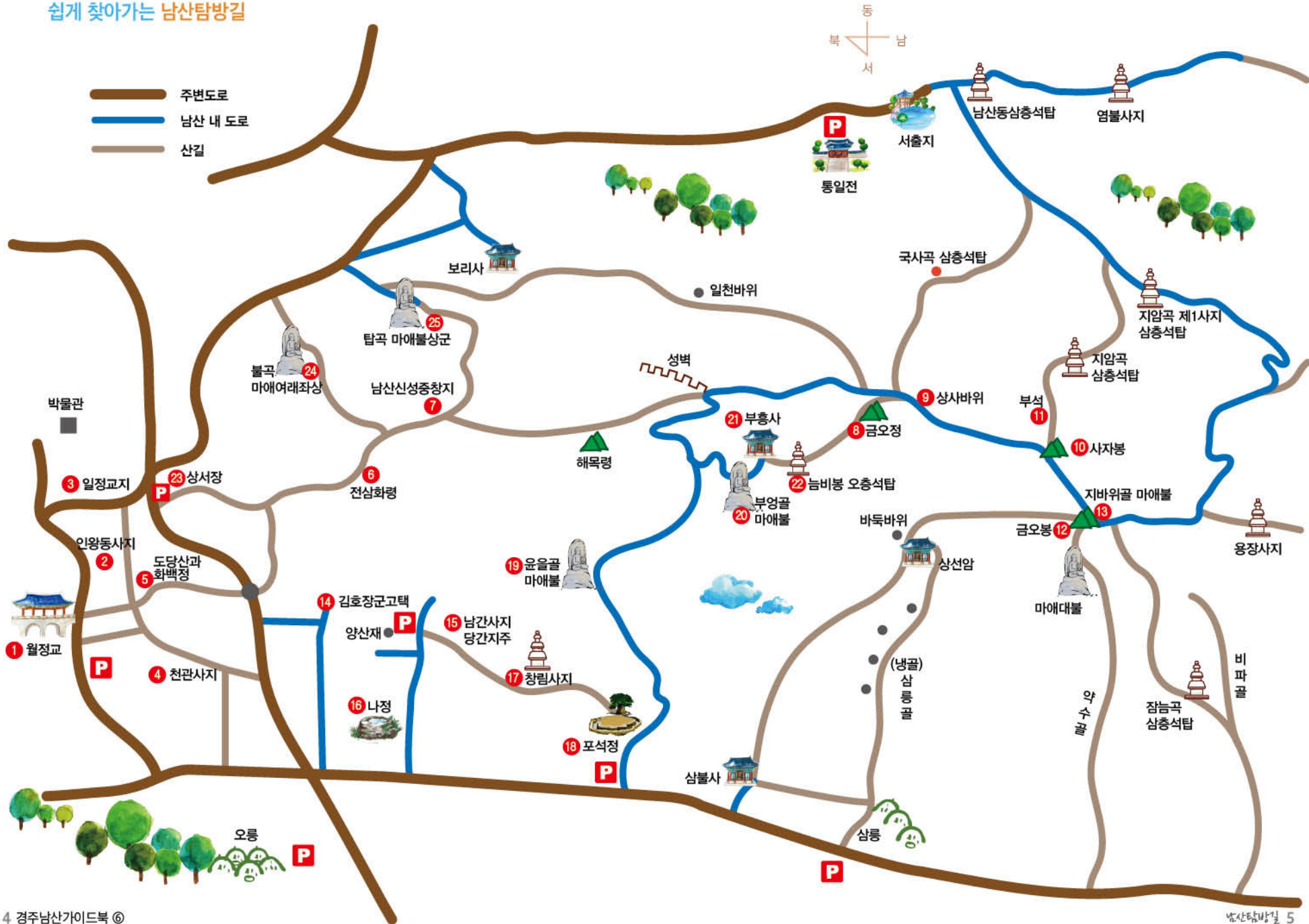
☎연락처 2020년 11월 1일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창 054. 745. 5521

\*이 안내책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쉽게 찾아가는 남산탐방길



## 월정교<sup>①</sup>

(사적 457호)

월정교는 신라 천년 궁성이었던 월성을 감싸고 흐르는 문천 위에 놓인 다리다. 서라벌의 남쪽에서 왕경의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또한 왕궁에서 남산신성과 남산의 수많은 절들로 가는 통로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인왕사, 천관사, 나정과 신궁, 창림사, 포석정, 오름, 삼릉 등 수 많은 역사유적과 만나게 된다.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760) 2월 구월 남쪽 문천 위에 월정(月淨)·춘양(春陽) 두 다리를 놓았다.”** 하였다. 당시 신라는 18만호 규모의 국제적 대도시였고, 천년 역사 중 정치적·문화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던 시기였다.

이후 고려 충렬왕 6년(1280)에 수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520년 이상 사용되었던 다리이다. 발굴조사결과 4개의 교각과 길이 63m, 폭 12m로 회랑 형태의 누각형 다리임이 확인되어 그렇게 복원하였다.

경덕왕 24년(765) 3월 3일 충담스님이 이 다리를 건너 귀정문(歸正門)에서 경덕왕을 만나 차 한 잔 올리고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임금은 아버지요,  
 산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요,  
 백성들은 어린아이라 여기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금슬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히 되어 감을 알리이다.  
 아 ~ 아 ~ 임금답게, 산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은 태평 할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남산을 내려와서 요석궁으로 들어갈 때 물에 빠진 다리는 19m 아래에 있던 유교(楸橋·느릅나무다리)였다.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걸어서 3분



## 인왕동사지<sup>②</sup>

(사적 533호)

김인문(629~694)은 문무왕의 동생으로 22년 동안 당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외교활동을 펼치며 숙위(宿衛) 하였다. 신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당 고종이 김인문을 옥에 가두자, 왕은 강수를 시켜서 인문을 석방해 달라는 글을 지어 당 고종에게 보냈다. 당 고종은 애절한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문을 방면하였다.

인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인왕사를 짓고 관음도량을 열었다. 694년 김인문이 귀국하는 도중에 바다 위에서 죽으니, 미타도량으로 고쳐 왕생극락을 빌었다하니, 인왕사는 신라인들의 눈물과 정성으로 이룩된 절이다.

발굴조사결과 통일기의 쌍탑기암으로 확인되었고, 인왕사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절 앞 연못에서는 연꽃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월정교에서 걸어서 3분



## 일정교<sup>③</sup>

(사적 457호)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760) 2월 궁의 남쪽 문천 위에 춘양(春陽)·월정(月淨) 두 다리를 놓았다.” 하였고, 『동국여지승람』(1486)에는 “일정교는 춘양교라고도 한다. 부의 동남쪽 문천(蚊川) 위에 있었다.”라고 하여 춘양교가 어느 때 일정교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때 <호불효교>, <칠성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월정교와 비슷한 규모로 3개의 교각과 길이 53.5m, 폭 12m로 확인되었다.



도당산 서쪽 기슭 논 가운데 있으며, 발굴결과 큰 절터와 우물, 건물지, 팔각석탑 등이 확인되었다.

김유신이 젊었을 때 하루는 천관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구중으로 스스로 맹서하기를 다시는 그 집 문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어느 날 말이 술에 취한 유신을 천관녀의 집으로 데려가자, 유신은 말의 목을 베고 돌아오고, 천관은 노래를 한 곡 지었는데 전해지고 있다. 천관사는 그 집이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 파한 이인로의 『파한집』(1260)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삼국유사』 「원성대왕」 조에는 왕위에 오르기 전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심이현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신라시대 제사와 관련된 사찰이라는 견해도 있다.

⑤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걸어서 7분

남산에서 북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머리에 솟은 산이 도당산이다.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작은 산이며 월성에서 마주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산이다. 이 산에는 원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삼국유사』 <진덕왕>조에 기록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령지의 우지암이 아닐까 한다.

28대 진덕왕때 알천공·임추공·술추공·호검공·연장공·유신공이 남산의 우지암에 모여 나라살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범 한 마리가 좌중에 뛰어 들었다. 모두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당소하면서 범의 꼬리를 잡아 땅에 매쳐 죽였다. 알천공의 완강이 이와 같아 뒷자리에 앉았으나, 여러 공들은 유신공의 위엄에 감복하였다. 신라에는 네 곳의 신경스러운 땅이 있어 나라의 큰일을 의논할 때 그곳에 모여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이요,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이다.

2016년 남산탐방길을 조성하면서 화백정을 세워 놓으니, 이곳에서 월성과 월정교 등 신라도성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화백(和白) - 『新唐書(신당서)』 「東夷列傳 新羅(동이열전 신라)」에 있다.

...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그만두었다.

⑥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걸어서 10분



1923년 출토되어 1925년 박물관으로 옮겨진 삼존불이 출토된 곳이다. 이 곳을 삼화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혹은 용장계곡의 대연화대를 삼화령으로 보기도 한다.

『삼국유사』 「생의사 석미륵」 조에

선덕왕때에 생의스님은 항상 도주사에 있었는데 꿈에 한 승려가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어 표를 해 놓게 하고는 산 남쪽 골짜기에 와서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나를 파내서 고개 위에 올려달라"고 했다. 꿈에서 깨자 그는 친구와 함께 표해 놓은 곳을 찾아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 보니 돌미륵이 나오므로 삼화령 위로 안치하였다. 선덕왕 13년(644년) 그곳에 절을 세우고 생의사가 했다.(추담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다려서 공양한 부처다)

『삼국유사』 「경덕대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에

경덕왕 24년(765) 3월 3일 귀정문 누각 위에 올라 좌우 산하들에게 "길에서 위엄과 풍모가 있는 스님 한 분을 데려오라"고 했다. 한 스님이 남의를 입고 등에 나무통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 세존께 차를 다려 공양하고 돌아오는 추담이었다. 왕은 추담이 다려 바친 차를 마시고 난 뒤 백성을 편히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지어 했다. 추담스님은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안민가다.(6쪽에 있음)



『삼국사기』에 "진평왕 13년(591) 7월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54보였다." 하였고, 1934년 발견된 『南山新城碑』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문무왕이 좌위에 올라 남산에 큰 창고를 설치하였는데 길이가 50보이고 너비가 15보이다. 이곳에 미륵과 병기를 저장하였다. 이것이 우창(右倉)이며, 천은사 서봉봉 산 위에 있는 것이 좌창(左倉)이라 한다." 하였고, "혜공왕 4년(768) 7월 3일 대무간간이 반관을 일으켜 서울과 5도 주군의 96간간이 서로 싸워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신성의 장창이 불에 탔다." 하였다.

26대 진평왕 때 쌓은 남산신성은 4850m가 확인되고 있으며, 지금도 곳곳에 벽돌처럼 쌓은 성벽이 남아 있다.

문무왕 때 설치한 우창은 통일된 왕국의 위엄의 상징이었고, 혜공왕 때 불타고 다시 짓지 못한 것 같다. 지금도 우창 터에는 이 때 타다 숲이 된 탄화미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의하면, "12월의 인일(寅日)에는 신성의 북문에서 팔자(八口: 농사를 도와준 8신)를 제사하되, 동년에는 대뢰(大牟)를 쓰고 후년에는 소뢰(小牟)를 썼다. 임춘 후 해일에는 명활성 남쪽 송살공에서 선농을 제사하고, 입하 후 해일에는 신성의 북문에서 중농을 제사 한다." 하여 신성의 북문이 신성스러운 곳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⑧ 금오정(金鰲亭)

1966년 남산관광일주도로가 준공된 이후 경주시에서 세운 정자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동으로는 토함산 불국사와 조양들, 북으로는 남산의 북쪽 능선, 봉우리들과 신라 천년의 궁성인 월성과 도성, 서로는 단석산과 내남의 가암들이 펼쳐져 보인다.



## ⑨ 상사바위

도로 옆 국사골의 능선에 있는 바위로서, 높이 10여m 되는 거암인데, 가파른 산위에 있어 더욱 높게 보인다. 바위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할아버지와 소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바위에는 할아버지와 소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 변하지 않는 바위로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애절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 ⑩ 사자봉



남산에서 가장 위엄 있는 봉우리이다. 사자봉(獅子峯)이라는 명문이 있으나 시대를 알 수 없다. 도로 준공시 국토건설단에 의해 팔각정이 세워 졌으나, 얼마 되지 않아 벼락 맞아 무너졌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라벌의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 도로는 경주남산을 관광화하기 위하여 국토건설단을 동원하여 1966년 11월 25일 완공하였다. 준공시 공식 명칭은 <남산관광일주도로>이다.

## ⑪ 남산부석

큰 바위 위에 부처님 머리 같은 큰 바위가 얹혀 있어 마치 대좌불(大坐佛) 처럼 보인다. 부처님 머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 부석(浮石)이라 부른다. 이 부근의 바위들은 불상처럼 생긴 모양이 많다. 여래상·보살상·나한상·좌상·입상 등 갖가지 모습의 부처님들로 산봉우리가 가득 차 있으니, 아래서 쳐다보면 하늘 세계의 부처님 궁전 같고, 올라가면서 바라보면 부처님 세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올라가서 앉아보면 스스로 부처가 되어 부처님 나라에 있는 듯하니, 이 산을 부처님들이 머무는 산으로 신앙한 신라 사람이 된 듯하다.



## ⑫ 금오봉

해발 468m로서, 포석계곡, 지바위골, 비파골, 약수골, 냉골의 분수령이 된다. 동으로는 토함산, 북으로는 영일만, 서로는 단석산, 서남으로는 가지산, 운문산, 신불산, 영축산 등의 준령이 바라보인다.



## ⑬ 지바위골 마애불

금오산 정상에서 용장계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 도로 옆 봉우리 아래에 있다.

숫아 오른 바위 면에 3.5m 정도의 마애불이 선각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법의의 주름 선으로 보아 고신라 불상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2005년 2월에 발견되었다.



## ⑭ 월암종택

(국가민속문화재 34호)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창의(倡義: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한 김초 장군(1534~1592)의 고택이다. 장군은 1570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봉사를 끝으로 20여 년의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있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경주의 각 군현을 다니면서 민심의 안정을 꾀하고 적진을 공략하였다. 큰 공을 세워 부산 첨사에 제수되었으나, 1592년 8월 경주 노곡전투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전사하여 임지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영조 34년(1758) 다시 형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종택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민가 건물 중 하나로 옛 건축 수법과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안채, 왼쪽에 아래채, 오른쪽 뒤편에 가묘가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높은 곳에 사랑채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구성은 단순하지만 대청 앞에 문짝을 설치하였고, 굴뚝을 부뚜막 한 쪽에 둔 것 등이 이채롭다. 이곳은 신라시대 절터로서, 지금의 건물은 17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주변에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석조물들이 있고, 마당의 우물뚜껑들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후손이 살며 가풍을 이어가고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인심도 후하여 쉬어가기 좋다. 고택 체험도 할 수 있다.



📍경주시 식혜골길 35





## 남간사지 당간지주<sup>16</sup>

(보물 909호)

나정과 남간사, 창림사 등이 있는 지역은 남산에서 사찰이 가장 많이 세워졌던 지역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남간사는 큰 사찰이었다. 남간 마을 전역에 목탑터, 석탑재, 하수구, 팔각대석, 주춧돌, 장대석들이 흩어져 있다.

나정에서 일성왕릉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 포석정으로 길이 이어지고 그 너른 들판에 돌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바로 남간사 당간지주이다. 당간지주는 절에 행사가 있을 때 불보살의 위덕을 표시하는 깃발을 올리는 계양대인 당간을 지탱하는 돌기둥이다. 높이 3.6m로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져 안정감을 준다.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해 깎아낸 '十'자형 간구는 다른 곳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당간지주에서 바라보는 절터는 그 옛날 이 절이 얼마나 웅장하였는지 실감나게 한다.

남간사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31대 신문왕과 32대 효소왕 때 활동한 혜통 스님의 집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며, 41대 헌덕왕(809~826) 때 남간사의 승려 일념이 『축향분예불결사문』을 지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헌덕왕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안에는 남간사에서 사용한 돌우물(석정:문화재자료 13호)이 남아있다. 땅을 파고 돌을 짜출린 후 그 위에 다듬은 돌로 뚜껑을 엮었다.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다듬어져 시원스럽다.

마을에서 동쪽으로 강당못을 지나면 천은사지와 일성왕릉이 있다.

경주시 남간길 65



## 나정<sup>17</sup>

(사적 245호)

신라시조 박혁거세거서간이 탄강하신 전설을 간직한 우물이 있던 자리라고 알려져 왔다. 신라가 세워지기 전 경주 일대는 진한의 땅으로 육부촌장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다.

전한 지절 원년 임자(BC69) 3월 초하루에 육부의 조상들이 알천의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도 덕 있는 사람을 찾아 군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여야 하지 않겠소!" 하였다.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의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러우고, 흰 말 한 마리가 끊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 살펴보니, 자줏빛 알 한 개가 있었다. 알을 깨어보니 사내아가기가 있었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두천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췄다. 이에 그 아이를 혁거세왕이라고 이름하고 초를 거슬한이라고 했다.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

최근까지 소나무 숲 가운데 조그마한 비각이 하나 있었다, 그 뒤에 주춧돌로 보이는 네 개의 돌이 규칙적으로 사방에 둘러져 있었고, 가운데는 우물을 덮은 것으로 알려진 넓은 판석이 놓여있었다. 비석은 조선 순조 3년(1803)에 세워졌다. 2002년 나정의 비각을 다시 지으려고 일대를 발굴하면서 그동안 추정해온 나정의 신비로움이 실제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팔각형 기단을 갖춘 건물터(한 변 8m 정도, 지름 20m, 넓이 300㎡)와 그 주위를 둘러싼 4각의 담장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연화문과 수막 새, 압막새 등 특수 기와도 출토되었다. 팔각의 건물 유적과 우물 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제사 터이며, 신궁으로 가장 중요시되던 공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화로만 여겨졌던 신라 건국이 실존의 역사로 확인된 발굴이었다. 이 터에 신궁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나정의 북동쪽 건물은 육부촌장을 모시고 향사를 지내는 육부전이다.

경주시 탑동 700-1



## 창림사지와 삼층석탑

(보물 1867호)

창림사지는 나정에서 탄강하신 박혁거세와 알영비를 모시고 걸렸던 신라 최초의 궁궐터이다. 옛 궁궐터에 절이 세워졌는데, 절에는 김생이 찬한 창림사 비가 있었다고 하여 38대 원성왕 7년(791)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단으로 이루어진 넓은 절터에는 삼층석탑과 석탑재, 수많은 주춧돌, 쌍두귀부, 석등연대 등이 남아있다.

절터에 우뚝하게 솟아 있는 삼층석탑은 남산에서 가장 큰 석탑이다. 상륜부가 없어졌음에도 높이는 6.5m에 달한다. 상륜부가 있었다면 9m에 이르는 거대한 탑이 된다. 절터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풍광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탑의 규모도 엄청나지만 팔부중상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하다. 상층 기단에 아수라, 건달바, 천, 가루라만 남아있는데, 이 탑을 시작으로 팔부중상이 새겨진 탑들이 서울과 지방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탑은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파괴되어 쓰러져 있던 것을 1979년에 없어진 부분을 추가하여 복원했다. 이 탑과는 별도로 아래 위치한 절터에서 팔부중상이 새겨진 쌍탑이 발굴되었는데, 이 탑은 1824년 도괴되면서, '무구정탑원기'가 발견되어 46대 문성왕이 발원하여 855년에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탑이 있는 창림사지는 그 유물과 유적이 발견된 범위에 미뤄 남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절이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곳에서는 석탑 외에도 양중맞을 정도로 귀여운 쌍귀부가 남아 있다. 곡선이 강조되어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무열왕릉의 귀부와는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 포석정

(사적 1호)

포석정은 신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아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이 좌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좌우에서는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신이 나타나 앞에서 춤을 추니 좌도 춤을 추면서 형상을 보였다. 신의 이름을 상심이래고도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은 이 춤을 전해서 어무상심 또는 어무산신이라 한다” 하였다. 또, 55대 경애왕 4년(927) 가을 9월 후백제 견훤은 고을부(영천)를 정벌하였다. 경애왕은 위기를 당하여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견훤은 구원병이 미처 이르기 전 겨울 11월 갑자기 서러벌로 쳐들어 왔다. 이때 좌와 좌비, 궁실의 주청들은 포석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놀고 있어, 적의 군사가 적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왕은 붙잡혀 군영에 이끌려 나와 평방하여 자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라를 타락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역사의 왜곡으로 보인다. 적군이 곧 들이닥칠 급박한 상황에서 이웃 나라에 구원요청을 하고, 겨울에 야외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989년 발견된 『화랑세기』에 의하면, 진평대왕과 세주전군이 포석사(鮑石祠)에 나아갔다는 일화, 문노가 죽자 포석사에 신으로 모셨다는 기사, 김춘추와 문희가 길례(吉禮)를 치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포석정은 호국신을 모시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경애왕도 이곳에서 호국신에게 제사지내고 기도하다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

구불구불한 돌 홈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위에 술잔을 띄웠다는 것은 제례 의식을 행하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유상곡수의 연회는 353년 3월 중국 동진의 나정에서 왕희지가 행했던 기록이 있으나, 동양 삼국에서 남아 있는 유상곡수의 흔적은 포석정 유구가 가장 오래되었다.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 윤을곡 마애불좌상

(지방유형문화재 195호)

남산신성 성벽 밑의 산비탈에는 많은 바위들이 솟아있는데, 그중 조금 큰 바위가 삼신바위라고 부르는 불상이 조성된 바위이다. 바위는 묘하게 'ㄱ' 자형으로 깎여 절벽을 이루고 솟아있다.

좁은 면에는 약 그릇을 받쳐 든 약사여래상이 조각되어 있고, 넓은 면에는 조각 기법이 흡사한 여래상과 또 한분의 약사여래상이 조각되어 있다. 좁은 면의 약사여래상은 넓은 띠 모양의 광배를 조성하였는데, 두광과 신광에 각각 2구씩의 화불을 조성하였으나 솜씨가 치졸하다. 넓은 면의 여래상은 좁은 면의 약사여래상과 조각기법이 흡사하지만, 화불은 없다.

넓은 면의 약사여래상은 두 구의 불상과는 조각기법과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두 구의 불상이 완화적인 조각이라면, 이 불상은 약간의 감실을 파고, 입체감을 살리려고 노력한 면이 역력히 보인다. 넓은 면의 여래상 좌측에 「태화구년을묘(太和九年乙卯)」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두 구의 불상은 835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 한구의 약사여래상은 그 이후에 추가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많은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이 바위 전체를 건물로 덮어 보호한 것을 알 수 있다.



## 부엉골 마애여래좌상

포석계곡 부엉더미 맞은편 산허리에 마애여래좌상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 부근에는 묘한 바위들이 많이 솟아 있는데 불상이 새겨져 있는 바위는 자연으로 치마가 이루어져서 눈비를 맞지 않게 되어 있다. 불상은 넓은 연꽃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데, 얼굴이나 몸매가 정돈되고 안정감을 주는 평안한 상이다. 조각 선에 힘이 없고 부드럽기만 한 것으로 보아 신라 하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머리카락과 얼굴이 마모된 것인지 처음부터 섬세하게 조각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광배가 조성되지 않고, 연화대에 받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완성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불상 앞에는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불상의 뒷면 바위에 석등대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산 아래 마을에서 남산을 올려다보며 남산 부처님에게 예배토록 조성된 불상으로 생각된다. 바위 면이 누른 빛깔로 되어 있어 석양 무렵 석양빛을 받으면 바위 전체가 황금빛을 발하여 황금불이라 부른다.



## 부흥사

신라시대의 절터에 1970년대에 세운 절이다. 옛 유적은 모두 교란되었고, 대웅전 마당에 삼층 옥개석이 남아있어 옛 절터임을 알려주고 있다.



## 늪비봉 오층석탑



포석계곡의 두 줄기 여울물이 합쳐지는 사이에 늪비봉이라 불리는 삼각산이 솟아 있다. 늪비봉은 높이 100m 정도 되는 바위산이다. 여기 부풀어 솟아 오른 바위 봉우리에 그렁이 기법으로, 아래 바위의 굴곡에 맞춰 윗돌을 다듬어 기단을 조성하고 오층탑을 쌓아 올렸다. 보통의 탑들은 돌의 면을 곱게 다듬는데 이 탑은 거칠게 정 자국을 남겼다. 때문에 자연적인 바위 산에도 어울리고 인공적인 탑에도 어울리도록 기단 부에서부터 인공을 생략하여 반 자연, 반 인공으로 처리하여 자연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7m도 채 되지 않는 탑이지만 100m나 되는 바위 봉우리와 연결되어 하늘과 통하는 높은 탑으로 승화된다. 계곡 어디서나 보이게 되니, 이 작은 탑으로 불국정토의 영감을 이 바위 봉우리에 세워 놓은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남산의 아름다운 불국토가 펼쳐진다. 이 탑은 부여 정림사 5층 석탑과 같은 형식의 백제계통의 탑이다. 통일하대에 신라도성의 한가운데에 백제계통의 탑이 세워진 것은 무슨 까닭일까? 또한, 독립된 봉우리에 탑이 조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흥사 대웅전에서 바라보면 마당 끝에 서 있는 탑처럼 보인다. 작은늪비절터에 속한 탑이다. 9세기 후반에 조성되었고, 2002년에 복원되었다.

## 상서장

(기념물 46호)



남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상서장은 남산의 서북쪽에 있는 독서당과 함께 고운 최치원(857~?) 선생의 유적이다. 경문왕 때 12살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장안에서 공부한 지 7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다. 881년 황소의 난 때 지은 <격황소서>로 당나라에서 문장가로 이름을 드날렸다. 이후 헌강왕때 신라로 돌아 왔으나, 골품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으로 뜻을 펼 수가 없었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고, 많은 저서와 비문을 남겼는데, 그 중 <계원필경>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문집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고운은 고려 태조가 비상한 사람으로 천명을 받아 장차 나라를 열 것을 알고 문안하였는데, 그 글 중에 “**계원은 황성이요, 풍경은 청송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고려 현종 때 선생이 고려 건국에 숨은 공로가 있다하여 내사령의 벼슬과 문창후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문묘에 배향하였다. 그 후로 살던 집을 「상서장」이라 하였으니 태조 왕건에게 글을 올린 집이란 뜻이다. 또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린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불곡 마애여래좌상

(보물 198호)

너비 4.5m, 높이 3.2m 쯤 되는 바위에 무지개 모양의 감실을 파고 시골 할매 같은 부처님을 새겨 놓았다. 얼굴은 고부조로 새기고, 신체는 약간 낮게, 대좌는 저부조로 조성하였다. 편평한 신체, 크고 둥근 얼굴은 명상에 잠긴 듯이 다소곳이 숙이고, 낮은 육계와 소발의 머리는 미끄러지듯 귀와 어깨를 덮었다. 몽툰한 코, 푹박진 눈은 그림자가 어려 부드러운 눈썹과 명상에 잠긴 듯 한 눈매를 그려낸다. 도톰한 입술, 뺨 등은 부드러운 볼륨으로 부풀어 있다. 네모난 어깨, 넓은 무릎은 육중하면서도 안정된 구도를 취하고 있다. 통견의 법의 사이로 드러난 가슴은 사각형으로 표현되었고, 깊고 강렬한 선각으로 새긴 옷 주름은 소매 사이로 흘러내려 폭포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수인은 선정인으로 추정 되고 있다.

이 불상은 불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조각의 고식, 육계와 어깨, 수인과 소매, 옷 주름의 간결하고 거친 조각, 상현좌, 발 조각의 치졸함 등으로 보아 고신라 시대의 신라에서 가장 오랜 석불(마애불)로 꼽혀지고 있으며, 흔히 석굴사원의 선행 양식으로 말하고 있다.



### 찾아가기

통일전 방면 화랑교 건너자마자 우측 강둑길을 따라 900m 정도 가면 부처굴 입구가 있다. 불상까지 약 7분 소요. **경주시인왕동 180-3**

## 탑곡 마애불상군

(보물 201호)



옥룡암은 작고 아담한 절이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저항지식인들이 머물렀던 절이다. 이육사도 1942년 7월부터 석 달을 이곳에 머물렀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유달리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절 뒤 높이 10여 m, 둘레 40여 m 바위 암벽에 사방으로 돌아가며 환상적인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바로 올려다 보이는 북면에는 9층 목탑과 7층 목탑이 있고 그 가운데 연화대 위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탑 위에는 비천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고 있다. 신라시대의 목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동쪽 면에는 본존과 보살,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일곱 구의 비천상이 있다. 불보살상 좌측 아래에는 돛자리를 펴고 앉아 공양 올리는 스님상이 있다. 가히 환상적이며 그림 같다. 면적이 좁은 서면에는 부처님 한 분과 비천 두 구가 있다. 부처님 위의 비천상은 흔히 신라여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남쪽 면에는 삼존불과 함께 독립된 불상이 있다. 삼존불은 화목한 가족을 연상케 한다. 우협시 보살은 경직된 모습이고, 좌협시 보살은 부처님에게 응석을 부리는 듯하다. 남쪽면에만 목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4면에 새겨진 불상과 탑들은 사실적이기보다는 회화적이다. 마당 남쪽에는 삼층석탑 1기가 우뚝 서 있다. 9세기 말에 조성된 탑이다. 이 절터에서 「神印寺」란 기와 명문이 출토되었다 하여 「신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신인사는 신인종의 명랑스님이 당나라의 군사를 몰아내기 위해 사천왕사에서 기도 중 부처님의 힘을 빌기 위해 이 바위에 만다라적인 부처의 세계를 조성하여 건립한 사찰이 아닐까?

##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코스	연중 시행					3~11월 시행		
	삼릉골	남산탐방길	동남산	서남산	남남산	삼릉골단축	삼릉 가는 길	동남산산책
시간	09:30 ~13:3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13:30 ~16:30	09:30 ~13:30	09:30 ~13:30
1 토	●					●	●	
일	●	●						
2 토	●					●		●
일	●		●					
3 토	●					●	●	
일	●			●				
4 토	●					●		●
일	●				●			
5 토	●					●	●	
일	●	●						
공휴	●							
출발지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 [삼릉골단축], [삼릉 가는 길], [동남산산책]은 3월~11월까지 운영합니다.

● 여름방학 기간에는 주중에도 매일 운영합니다.

● 방학 중 월·수·금 : 남산탐방길(단축 코스)

● 방학 중 화·목 : 삼릉골 코스

● 남산달빛기행(별도안내)

● 모든 답사는 참가비 무료이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해설합니다.

● 모든 답사 프로그램은 답사 전날까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사)경주남산연구소 홈페이지(www.kjnamsan.org)에서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는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시간 등이 공지됩니다.

● 문 의 : 경주남산연구소 (054-777-7142)

● 제 공 : 전문해설사 동행 해설, 남산지도, 기념엽서 등

● 준비물 : 간식, 생수, 수건, 등산차림, (하루코스)점심도시락 필수

● 참가비 : 없음

##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지 역	목적지	주 소	주차비(1회)	비 고
동남산	불곡 입구	경주시 인왕동 180-3		
	탑곡 입구 주차장	경주시 배반동 1132-69		버스 가능
	탑곡 옥룡암	경주시 배반동 1114		
	보리사 입구	경주시 배반동 1132-60		버스 가능
	보리사	경주시 배반동 산 66-1		
	산림환경연구원	경주시 남산동 725-2		
	화랑교육원 주차장	경주시 남산동 830-5		버스 가능
	<b>통일전 주차장</b>	경주시 칠불암길 6	무료	버스 가능
	남산리 탐	경주시 남산동 226-2		
북남산	염불사지	경주시 칠불암길 125		
	시마소	경주시 교동 89-1		
서남산	<b>월정교 주차장</b>	경주시 천원2길 11	유료(미정)	버스 가능
	상서장 주차장	경주시 인왕동 276-3	무료	버스 가능
	<b>오룡 주차장</b>	경주시 탑동 231-1	대 2,000, 소 1,000	버스 가능
	월암고택	경주시 식혜골길 35		
	나정	경주시 탑동 700-1		주차시설 없음
	양산재 주차장	경주시 남간길 37-10	무료	버스 가능
남남산	일성왕릉	경주시 남간길 99		
	<b>포석정 주차장</b>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대 4,000, 소 2,000	버스 가능
	지마왕릉 주차장	경주시 배동 483-1		
	삼불사 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92-25		
	<b>서남산 주차장</b>	경주시 포석로 647	대 4,000, 소 2,000	버스 가능
	약수골 입구(월성대군단소)	경주시 포석로 530		
	황금알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508		버스 가능
	약천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482		버스 가능
	<b>용장리 주차장</b>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대 4,000, 소 2,000	버스 가능
	통수골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734-1		주차시설 없음
남남산	용산서원	경주시 포석로 110-34		버스 가능
	열암곡 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99	무료	버스 가능



경주남산 문화유적답사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힐링 역사체험입니다.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

慶州南山研究所